

한국 30대~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중성에 관한 연구*

송 다 영

(인천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이중돌봄, 돌봄경험, 돌봄노동, 돌봄관계, 아동돌봄, 노인돌봄

*이 논문은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Scientific Research[B](No. 24310192)와 CESSA 지원에 의한 것임. 전체 프로젝트 중 한국 자료에 기반을 둔 것임.

1. 서론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의 주된 책임은 가족구성원이 맡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돌봄의 확대 속에서도 여전히 아동과 노인을 위한 가족내 돌봄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가족구성원에 의한 돌봄에 관한 연구는 아동(자녀)과 노인(부모) 돌봄이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다. 전국적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도 각각 아동과 노인을 개별적인 조사대상으로 삼았다(정경희, 2001; 여성가족부, 2004). 이처럼 아동과 노인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기조에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이 별도의 생애주기에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았던 여성을 중심으로 보면 아동돌봄은 20~40대에, 노인돌봄은 50~60대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돌봄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돌봄은 사실 특정 시기에 몰려 있기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보편적 현실이다(Kittay, 1999; Nussbaum, 2002).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만혼화와 늦은 출산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기와 부모를 돌보는 시기가 중첩되거나 간격이 짧아지면서, 아동과 노인돌봄의 요구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돌봄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Kunemund, 2006). 일군의 연구자는 만혼화와 소자녀화에 의해 촉발된 성인자녀의 아동돌봄+노인돌봄의 부담을 '이중돌봄부담(burden for double responsibilities of care, double care)'으로 정의하고 있다(Soma and Yamashita, 2013).

또한 가족에 의한 돌봄이 가지는 다층적 측면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족내 돌봄은 한편에서는 애정과 유대감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신성하고 보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노동권을 저해하거나 생활상의 제약과 부담을 일으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돌봄은 마냥 즐겁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니며, 언제나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는 노동인 것만도 아니다. 돌봄은 돌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돌봄제공자와 피돌봄자와의 관계에 따라 즐거움과 부담이 교차하거나 공존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에 의한 돌봄을 균질하게 전제하는 시각을 벗어나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실제적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의 현실을 제시하고, 가족내 이중돌봄의 다층적 경험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문제가 간헐적이고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과정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돌봄의 일상성을 부각시키고, 둘째, 이중돌봄이 일어나는 맥락과 그 속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가족내 돌봄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중돌봄의 어려움이 근래 확대되고 있는 각종 사회 서비스 정책들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와 심층면접 방식을 병행하였다. 설문지 조사에 기반한 양적 통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이중돌봄의 보편성을 드러내며, 심층면접은 이중돌봄의 실제적 고충,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선순위 충돌, 아동양육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족원과 돌봄대상자간에

존재하는 관계 및 상호작용을 부각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두되었으나, 아직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지 않았던 이중돌봄의 문제에 대응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이중돌봄 문제의 등장 배경: 여성/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돌봄 정책간 괴리

대체로 돌봄 논의에 있어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은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 돌봄의 사회화 정책에 있어서도 아동돌봄은 주로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노인돌봄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돌봄을 주로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돌봄은 30-40대 초반까지의 청장년층 여성이 주로 당면하는 문제로, 노인돌봄은 50대/60대 이후의 중노년층 여성의 문제로 분류되어 왔다. 돌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에 대한 연구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이 요구되는 시기가 생애주기상 서로 상이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또한 각각의 돌봄이 갖는 사회적 제약의 내용도 다름을 바탕으로 한다. 즉 아동돌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한을 주된 문제로 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Daly and Lewis, 2000), 노인돌봄은 경제적 능력이나 신체건강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에 반비례하여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과 고된 수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왔다(Spillman and Pezzin, 2000).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환경 변화속에서 아동과 노인돌봄의 요구가 시기적으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요구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중돌봄이란 “한 시점에 아동과 노인을 돌봄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¹⁾(Soma and Yamashita, 2013). 통상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50-60대가 그들의 초고령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것이 이전의 추세였다면, 점점 30-40대의 젊은 세대에게도 중고령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확률이 높아져가고 있다. 50-60대에 걸친 베이비부머 세대는 공고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을 두었던 반면, 남성에 의한 생계부양자 모델이 현저히 약화된 최근 30-40대의 이중돌봄은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돌봄방식과 구성물로 변화해가고 있다. 여전히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지만 맞벌이 경우에는 직접 돌봄 이외에 돌봄을 위한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형제-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단위의 돌봄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Kunemund, 2006; Rubin and White-Means, 2009).

1) 이중돌봄(double burden of care)은 크게 두 그룹에서 나타나는데, 한 그룹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그들의 고령부모와 자녀가 돌봐야 하는 손자녀를 이중적으로 돌보는 것이며, 다른 한 그룹은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로 그들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Rubin and White-Means, 2009; Spillman and Pezzin, 2000).

이처럼 30-40대 젊은 세대에게 이중돌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돌봄의 주체였던 여성에게 일어난 변화가 가장 크다.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고등교육 이후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시기도 고령화되는 데서 비롯된다. 대략 35세 이전에 출산을 마쳤던 1990년대에 비해서 30-34세의 출산이 가장 보편적인 패턴이 되어 있으며, 35-39세의 조출산율도 32.6까지 높아지고 있다. 출산의 고령화는 아동돌봄의 시기가 중년기로 지연, 이행되면서 60세 이후 건강상 장애를 갖기 시작하는 노인돌봄의 문제가 중첩되는 이중돌봄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소자녀화로 한 성인이 짊어질 돌봄의 총량 늘었다. 1970년 4.53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 1990년 1.57, 2000년 1.47, 2010년 1.2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부모에 대한 돌봄 위기가 분산되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돌봄 정책에 전제된 돌봄 범위의 협소성으로 이중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김희강·강문선, 2010; 마경희, 2010; Folbre, 2001; Noddings, 2002). 보육정책은 6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한다. 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른 만성질환을 가졌을 경우라도 65세 미만일 경우이거나 노인성 관련 질병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으나 1, 2급 중증이 아닐 경우 대부분 사회적 정책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정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을 가족구성원이 가졌을 경우 그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가족이 짊어지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것은 가족내에서 아동과 부모를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이중돌봄의 부담으로 나타난다.

2) 돌봄(caring)의 다중성: 노동 혹은 관계?

그동안 가족내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돌봄이 주는 부담과 여성이 갖는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정경희, 2001; 김미경·송다영, 2002; 송다영, 2003; 장혜경 외, 2005; 2006; 박영란, 2007).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돌봄이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며, 대체적으로 가족 중 특정인, 대부분 여성에 의해 전담되어진 돌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으로서 보육서비스 확대와 요양서비스 도입 등이 제도화된 바 있다. 그런데 돌봄을 부담이나 스트레스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일군의 학자들은 돌봄은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 동력임을 강조하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윤리²⁾가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2) 키테이(Kittay, 1999)는 우리 모두는 어떤 어머니의 자녀(some mother's child)로 돌봄을 받으며, 그런 돌봄의 혜택을 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보편 윤리임을 강조한다. 너스바움(Nussbaum, 2002)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인간은 모두 생애주기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호혜성 기반위에 서 있음을 가정한다. 노딩스는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간의 감성적, 정서적 관계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것은 이성과 합리성 이상의 것으로 자리매김 시킨다(Noddings, 2002). 돌봄이 가진 관계의 중요성은 헬드(Held, 2006)에 의해서 재정의되는데 돌봄은 노동으로서의 속성을 지닌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노동과 같이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노동 이상의 것이다. 헬드는 돌봄은 노동이 아닌 돌봄관계(care relationship)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같은 돌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돌봄노동을 지나치게 낭만화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돌봄을 맡아온 여성에게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굴레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돌봄은 시간상 구속이나 돌봄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과 제약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서의 속성을 갖지만, 또한 아동과 부모를 향한 관계적 구성물에 의해서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본다면 돌봄이 가지는 관계적 측면의 중요성은 배제할 수 없다(Daly, 2002; Ungerson, 2005). 따라서 돌봄은 균질적이고 단일한 행위라기보다는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행위와 관계의 복합체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돌봄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맥락은 돌봄제공자와 돌봄대상자간의 돌봄을 다중적으로 재구조화해 만든다. 구체적인 실례로 기부장제적 문화와 유교의 영향력이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돌보는 경우와 딸로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유사성과 동시에 상이성을 수반할 수 있다(이여봉, 2011). 관계로서의 돌봄에서 본다면 시부모와 부모에게 갖는 애정적 유대와 의무감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것은 돌봄과정에 영향을 서로 다르게 미친다. 또한 부계 중심의 가족돌봄이 일반화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남성배우자가 그들의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자와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돌봄과정에서 조우하는 돌봄제공자-돌봄수혜자-돌봄보조자(남편 혹은 형제자매 등)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돌봄경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족내부의 사회적 관계(며느리, 딸 vs 아들, 사위)와 남녀간 성역할이 테올로기의 결합은 돌봄의 과정을 상이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개별 가족에서 일어나는 돌봄은 '누가 돌보는가', '누구를 돌보는가', '어떻게 돌봄 행위를 하는가', '돌봄당사자-돌봄대상자 관계는 어떠한가', '경우에 따라서는 돌봄당사자-대상자-보조자 관계는 어떠한가'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돌봄의 구체적 경험이 형성되게 된다. 또 돌봄행위에 있어서 '누가 직접 돌보나', '누가 돌보는 자를 도와주나', '누가 돌보는 일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나' 등과 같은 가족내 관계 혹은 가용자원의 여부 등에 의해서도 돌봄경험이나 어려움 수위는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근래 증가하고 있는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들은 이제까지 가족내부에서 수행해 왔던 돌봄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최희경, 2008; 2011; 박기남, 2009; 신경아, 2011).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가족관계, 사회적 지원 환경의 변화속에서 이중돌봄이 수행되는 방식과 역학 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아동돌봄, 노인돌봄의 돌봄요구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과 메커니즘을 통해 돌봄이 수행되는가를 분석하지 못했던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6세 이하의 아동돌봄과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부모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의 과정과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조화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고 있다. 즉 돌봄은 행위의 제공여부에 따른 결과물(output) 이외에 돌봄을 주는 당사자의 동기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의 욕구가 충족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기 때문에, 돌봄은 노동으로서의 측면보다는 관계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 이중돌봄 중 아동돌봄은 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인돌봄은 치매, 뇌일혈, 관절염, 우울증, 기타 질환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봐드리거나, 생활지원, 케어매니저와의 연락 및 서비스조정 등 광범위한 의미의 돌봄이나 지원을 말한다. 즉 돌봄은 직접적 수발행위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돌보면서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푸념을 들어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정신적 케어를 포함하며, 도우미(노인/아이돌보미)를 고용하거나 공공/민간 기관이나 병원에 연락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의 관리를 포함한다(Soma and Yamashita, 2013). 근래 국가별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구성원에 의한 직접적 돌봄 제공의 절대량은 줄어들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요양보호서비스 이용 관련 조정, 일정 관리, 정신적 케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을 전통적인 물리적 도움에 한정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돌봄이 수행되는 공간과 맥락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돌봄에 대해서 돌봄=부담 혹은 돌봄=애정적 헌신과 보람과 같이 이원론적으로 접근했던 방식과 다르게 돌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다층적 측면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서의 맥락과 그 속에서 당사자(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간 맺는 관계에 의하여 서론 다른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결합하였다.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결합한 이유는 첫째, 양적 조사를 통하여 이중돌봄의 광범위성과 돌봄 경험의 전반적 경향성을 개괄적으로 보여준 후, 둘째, 양적 조사로 밝혀 낼 수 없는 이중돌봄의 내밀한 갈등과 돌봄과정에서의 다층적 경험을 심층면접과 케어묻기(probing)³⁾를 통해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유태균 역, 2005). 또한 심층면접을 하면서 돌봄제공자가 스스로 돌봄경험 속에서 가족-형제-사회서비스간 돌봄 시간이나 양의 조정, 보건 및 의료서비스 등을 통한 돌봄방식 관리 등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

3) 본 연구는 질적 방법론으로 심층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심층인터뷰란 연구자가 미리 연구문제를 준비해가고 이 연구문제를 질문해가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로부터의 답변이나 행동, 분위기 등등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 흥미로운 점 등을 발견하여 더 깊게 케어묻기를 하면서 내용의 깊이를 더 해가는 방식이다. 인터뷰의 초기 질문은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상황, 육아 상황과 방식, 더블케어(이중돌봄)에서 우선순위 결정방식, 향후 더블케어상황에 대한 전망, 사회적 공식 서비스 도움정도, 가족도움 정도(특히 배우자 남편과 다른 주요 가족구성원 등), 돌봄의 보람과 부담 정도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중돌봄의 어려움시 대처방안, 추가적으로 원하는 가족으로부터의 도움 혹은 사회서비스 등이었다.

속에서 제기되는 실질적 요구를 찾아내는 'needs talk'을 결합하였다(Fraser, 1990). 즉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사항(ex 사회서비스 등), 현재 주어진 것들 중 충족되지 않거나 혹은 보충되어야 하는 사항, 외형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향후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정책 관련 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인다.

2) 자료수집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우선 이중돌봄의 실태와 돌봄의 경험 전반을 분석하기 위하여 온라인에 기초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⁴⁾. 설문지 수집은 단순표집과 할당표집 방식을 결합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6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고르게 표집하기 위하여 지역별, 취업여부별, 소득수준별 할당방식⁵⁾을 활용하였다.

설문지 조사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양적 실태와 현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빈도분석, ANOVA 등 기술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돌봄관계와 돌봄경험의 다중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돌봄당사자가 부모나 배우자 부모돌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가지는 즐거움과 부담은 1-10점 척도로 해서 체크하게 한 다음 이를 각각 즐거움과 부담의 총량으로 표현하였다. 즉 1로 가면 즐거움이나 부담의 크기가 없거나 적은 것이고, 10으로 갈수록 즐거움이나 부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556명을 대상으로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에 대한 통계조사는 각각 대상자별로 돌봄경험의 전반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돌봄대상자-돌봄당사자간 관계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관계가 나쁜 것이며, 높아질수록 관계가 좋은 것이다 (1=매우 나쁘다, 2=나쁜 편이다, 3=좋은 편이다, 4=매우 좋다). 부모, 시부모 대상자별로 돌봄의 제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심층면접자는 설문지 조사에 완료한 사람 중에서 첫째,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이중돌봄을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중돌봄을 장기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둘째, 2-3시간 정도의 심층인터뷰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취업여부와 인구학적 특성(며느리, 딸) 등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최종 20명을 선출하였다. 이들에게는 이중돌봄을 하게 된 이유, 돌봄의 내용, 가족도움 및 사회서비스 이용 상황, 향후 이중돌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대부분 조

4) 본 조사는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이중돌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연구 중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5) 지역은 크게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40%, 중소도시 30%, 읍면지역 30%로 할당하였으며, 취업 상황은 취업 50%, 미취업50%로 할당을 주었다. 소득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각각 30%, 40%, 30%가 되도록 하였다. 할당표집을 위하여 초기 자료수집 목표는 500명을 계획하였으나, 취업과 지역할당에서 취업자와 읍면지역을 추가해야 해서 최종 수집은 556명에 달하였다.

용한 카페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렸다. 녹취를 하면서 생겨난 궁금증이나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 자세하게 통화하면서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이미 면접 과정을 통해서 상호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추가면접이 제한을 받지는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들이 처한 돌봄 상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돌봄상황

번호	이름	돌봄 상황
1	A	42세. 전업주부. 10세, 6세 자녀 둘 양육하면서, 시부모를 11년 동안 동거하며 모시고 살고 있음. 시어머니에게 시각장애와 중풍이 있고, 시아버지가 일차적인 돌봄을 하지만 일상생활 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음.
2	B	39세. 전업주부. 10세, 6세 자녀 둘 양육하면서,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며 돌봄 제공. 아버지가 당뇨, 고혈압 등 질병을 가지고 있음. 아버지 건강상태는 병원치료로 관리 가능하나 자녀-할아버지간 갈등이 있음. 위암으로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음.
3	C	37세. 전업주부. 15, 12, 5세의 자녀를 키우면서 큰며느리로 시부모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음. 시어머니 협심증으로 시아버지가 주수발자이나 아프실 경우 거의 매일 찾아가서 식사, 청소, 시장보기, 빨래, 병원동행 등을 수시로 챙겨드림.
4	D	33세. 풀타임계약직. 5세, 3세 아이를 키우고 있음. 시부모는 큰 병은 없으나 생활하기 어려워 경제적 도움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으며, 친정어머니는 아프셔서 가끔씩 병원비 지원하고 있음. 빠른 시기에 시부모 모실 가능성 높아 힘들어 함.
5	E	31세. 비정규임시직. 4세, 2세, 임신 중 세 아이를 가지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갑상선, 골다공증, 시아버지 고혈압 통원치료 중. 일상적으로 돌봐드리고 소득 때문에 일하고 있으며 돌봄비용의 어려움을 호소함.
6	F	29세. 전업주부. 11개월 된 아들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양쪽 어머니 돌아간 상황에서 양쪽 아버지 경제활동안하고 계셔서 돌봐드리는 어려움 경험. 친정아버지 암수술후 통원치료하고 있어 직접 돌봄. 돌봄스트레스로 두통, 장염치료.
7	G	29세. 풀타임. 17개월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 시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음. 노환질환을 갖고 계신 시할머니는 시부모가 돌보나, 본인은 3대 가족의 가사와 집안일 전체를 책임지고, 읍지역이라 병원동행 및 운전 등으로 시간에 쫓겨 사는 어려움.
8	H	37세. 파트타임.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졌으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있음. 시부모는 큰 동서가 모시고 살고 있으나 시부모의 치료비용 전액을 담당하고 있고 매주 방문을 요구받는 상황이라 부담감 갖고 있음.
9	I	41세. 전업주부. 15세, 4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자주 아픈 친정부모를 돌봐드리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음. 오빠 많은 집의 딸이라 직접 돌보는 일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부터 병원동행, 물리치료 모두 함.
10	J	33세. 전업주부. 4세. 2세 2개월 된 아이가 있으며 간경화, 당뇨로 고생하는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돌봄. 작은며느리가 큰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본인과 배우자가 주로 돌봄. 곧 함께 동거하며 돌볼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 중.
11	K	36세. 임시직. 중1. 초1된 아이가 있으며 양쪽 부모 모두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 시부모가 가까이 살고 시어머니 아프셔서 살림 해드리고 친정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병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돌봄 잘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받음.
12	L	46세. 자녀는 16,14세로 모두 성장. 결혼직후부터 10년 동안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된 친정어머니 돌봄. 돌봄으로 형제간 갈등 첨예하여 본인이 어머니를 맡음. 현재는 친정어머니는 요양시설에 요양 중. 요양시설 담당자와 수시전화, 조정상담
13	M	29세. 아르바이트.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결혼 후 6년 동안 노환중인 배우자의 시외조부모를 모셨음. 배우자 직장이동으로 현재는 모시지 않음. 친정부부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간헐적 경비지원. 형제 중 누가 모실지 걱정 중.
14	N	31세. 계약직. 4살, 2살 아이 키우고 있으며 시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 직장병행 어려워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가 둘째 자식이지만 큰 형이 여의치 않아 시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모실 계획 중.
15	O	48세. 간헐적 아르바이트. 청각장애 19세 자녀와 9세 키우고 있으며, 중년기에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를 1년간 집에서 직접 모셨음. 현재는 요양시설에 요양 중. 시모도 건강치 않으나 장애가진 자녀돌봄으로 모시기 어려운 상황. 고민중.
16	P	39세. 파트타임. 10, 7, 3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신장투석을 하는 시어머니가 있음. 주돌봄자는 시부이나 가족 전체의 살림을 도맡아하고 병원치료, 서비스이용 등으로 갈등 있음. 본인 건강이 좋지 않고 돌봄스트레스로 경미한 우울증.
17	Q	37세. 전업주부. 15세, 5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디스크에 걸린 시어머니 동거하며 돌봄. 시누이가 도와주나 경제적 부담, 수발 거의 본인이 담당. 돌봄스트레스로 한의원 다님.
18	R	33세. 전업주부. 9개월 된 자녀 키우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뇌경색인 시아버지 7개월간 집에서 돌보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음. 결혼직후부터 시부 돌봄문제로 남편과 관계 악화로 아이도 생기지 않는 등 어려움 겪었음.
19	S	30세. 대학원생. 3세 된 자녀가 있으며 전신마비, 언어장애, 치매를 증증으로 앓았던 시아버지를 결혼하면서부터 돌봄. 간병인도 조금 사용했으나 산재상병 완료 후에는 집에서 남편과 돌봄. 임신 중에도 이중돌봄을 해서 신체적으로 힘들었음.
20	T	45세. 가게하다 전업주부. 10세, 5세 자녀 키우며 한 지역에서 가깝게 사는 친정부모 보살피고 있음.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살림, 쇼핑을 주기적으로 도와주고 있음. 이중돌봄 어려워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이후 비용 드리는 것에 부담 느낌.

4. 연구결과

1) 이중돌봄의 현황과 실태

조사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부모 혹은 부모 중에서 돌봄이 필요해 이중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에 달했다. 과거에 이중돌봄을 했다는 비율(6.1%)까지 합하면 38.1%에 이른다. 향후 몇 년 후에 이중돌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4.9% 정도가 이중돌봄의 상황에 놓인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이중돌봄이 몇몇 소수의 가구에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두 명의 젊은 성인이 결혼을 하여 가구를 이룰 경우 자녀를 포함하여 총 다섯 단위(아동, 부, 모, 시부, 시모)의 돌봄대상자가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족내에서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일상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6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면서 동시에 신체적으로나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세대를 돌보아야 하는 이중돌봄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Soma and Yamashita(2013)에 의하면 일본도 조사대상자 중 40-50% 정도가 현재, 과거 혹은 미래에 이중돌봄을 할 것으로 보고해 양 국가의 유사성이 보인다.

〈표 2〉 6세 이하 양육 중 아이와 부모/시부모 돌보는 이중돌봄 경험률

	빈도(%)	누적빈도율
현재 이중돌봄 중이다	178(32.0)	32.0
과거에 이중돌봄을 했다	34(6.1)	38.1
몇 년 후에 이중돌봄에 직면할 것이다	93(17.7)	54.9
이중돌봄에 놓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1(45.1)	100.0
전체	556(100.0)	

이중돌봄을 현재 제공하거나 제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머니 13.7%, 아버지 16.4%, 배우자 어머니 18.7%, 배우자 아버지 18.8%로 나타났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비해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주로 아들 부부에 의한 노인돌봄, 즉 부계가족 중심의 돌봄이 강한 한국의 사회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돌봄의 조합은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부모/시부모 한 분씩을 더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부터, 동시에 여러 명을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표 2〉의 결과와 합쳐본다면 다수의 가구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부담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여성이 취업을 한 경우 아동, 부/모, 유급노동의 3중 부담을 책임지는 어려움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3〉 6세 이하 양육자 중 부모/시부모 돌봄의 현황

(건강문제/질환으로)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어머니	배우자아버지
일상생활 도움주고 있다	65(11.7)	55(9.7)	86(15.5)	62(11.2)
도움이 필요 없다	464(83.5)	401(72.1)	427(76.8)	349(62.8)
돌아가셨으나 도움 필요했다	11(2.0)	3(6.7)	18(3.2)	42(7.6)
돌아가셨고 도움 필요없었다	15(2.9)	62(11.3)	25(4.5)	103(18.5)
전체	556(100.0)	556(100.0)	556(100.0)	556(100.0)

2) 돌봄의 이중적 측면과 돌봄관계에 따른 돌봄 경험의 다양성

돌봄을 수행하는 동안에 돌봄제공자의 경험은 단일하지 않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즐거움만으로 전철되지도 않을 것이며, 반대로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Ungerson, 2005). 또한 자신의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나, 아픈 시부모에게 돌봄을 주는 경우에도 온전한 즐거움만으로도, 혹은 배가된 부담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기존의 돌봄에 관한 연구는 아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즐거움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며느리로서 시부모에 대한 사회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 부담이 높고, 딸로서 부모에 대한 돌봄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이여봉, 2011).

본 조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아동돌봄은 즐거움도 크지만(7.9), 부담도 함께(6.1) 수반되고 있었다. 즐거움에서 부담간 격차는 +1.8로 부담보다는 즐거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6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사대상자들의 부담의 총량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즐거움 보다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돌보는 것의 부담은 부모 집단에 버금가는 것으로 이들 여성이 지닌 부담의 원인과 유형을 자세히 이끌어내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부분에 서술하도록 하겠다.

아동에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돌보는 경우는 즐거움은 5.4, 5.7, 부담은 6.8, 6.0으로 즐거움은 줄고, 부담은 늘어난 경향이 보인다. 자신의 부모와 비교해볼 때 시부모 그룹은 즐거움 < 부담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더 벌어진다. 30대~40대에 아동을 양육해 나가는 과정에 부모나 시부모가 질환이나 장애로 일상적 지원으로부터 병원비, 서비스 배치 등을 동시에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돌봄제공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제공자가 돌봄대상자와 현재 시점에서 맺는 혹은 오랫동안 맺어 왔던 관계의 친밀성이나 호혜성과 같은 관계적 요소는 돌봄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마경희, 2009; 박기남, 2009; 신경아, 2011).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즐거움과 부담감이 교차하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돌봄은 측정이 가능하지 않아 하위 비교분석은 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 돌봄은 예상대로 관계가 좋았을수록 즐거움은 높고 부담은 낮은 경향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매우 좋았다'고 응답한 그룹은 그렇지 않는 그룹에 비하여 즐거움과 부담이 상호교차되는 지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아버지 돌봄에서도 예측된 방향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이한 사항은 어머니와 비교해보면 부와의 관계가 나쁠 경우 즐거움은 상당히 낮은 점수로 하향 수렴된다는 것이다. 셋째, 시부모는 부모에 비해서 즐거움은 낮고 부담감은 높게 나타나지만, 관계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즉 관계가 나쁠 경우에, 즐거움은 부모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나고 거의 바닥에 가까운 점수로 하향화 된다. 이와 반대로 관계가 좋았던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간에는 즐거움의 수치가 급상승한다. 시부모그룹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즐거움은 관계가 좋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시어머니 돌봄부담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한 그룹과 나쁜 편이라는 그룹간 차이만 보이고, 시아버지 돌봄부담은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시부모와의 관계와 돌봄경험의 다양성-즐거움과 부담

		매우 나쁨(a)	나쁜 편(b)	좋은 편(c)	매우좋은 편(d)	전체	F값 유의도	그룹간 차이	즐거움-부담
모	즐거움	6.2	4.4	5.9	7.2	5.4	28.0***	b-c/b-d/c-d	-1.4
	부담	8.0	6.6	6.2	5.6	6.8	6.3***	a-d/c-d	
부	즐거움	2.3	3.9	5.7	7.0	5.7	52.7***	all	-0.3
	부담	6.5	6.5	6.2	5.4	6.0	4.9**	b-d/c-d	
시모	즐거움	1.5	2.9	4.8	6.4	4.7	44.6***	all	-2.7
	부담	8.4	8.1	7.3	6.9	7.4	4.1**	b-d	
시부	즐거움	1.4	2.9	4.6	6.0	4.4	33.4***	all	-2.6
	부담	7.2	7.4	7.0	6.4	7.0	1.2	-	

*p>.05, **p>.01, ***p>.001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이중돌봄 경험의 다층적 구조

돌봄 경험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즐거움과 부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돌봄제공자-돌봄 대상자-돌봄보조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6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노인을 동시에 돌보아야 하므로 이중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에 대한 돌봄은 대개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이나 서비스 연결, 통원 치료 동행 등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일반 가구보다 경제적 비용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돌봄제공자인 여성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중돌봄: 즐거움과 부담사이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은 우선 돌봄제공자가 취업을 하고 있던 전업주부이건 즐거움이나 보람 속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시간압박과 제약이다. 직접 돌보아야 하는 시간 자체의 과중함도 있지만, 대기시간 혹은 하루의 시간을 항상 아이와 노인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런 요인으로 작동한다. 아동이 어릴 경우에는 거의 하루를 함께 있어야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가거나 식구들과 외식하는 것이 외출의 전부인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즐겁고 좋지요. 그런데 늘 시간은 힘들죠. 지금도 아이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종일반에 있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세시 되면 딱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굳이 억지로 보내고 이려는 것 같아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활이 따로 없고, 애들한테, 애들 생활에 내가 너무 맞춰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B)

애를 24시간 데리고 있어야 하니깐 밖에도 잘 못나가죠. 아직까지는.. 외출도 못하시고 (어머님) 병원 갈 때나 한번 씩 가고 식사할 때나 한번 씩 가고 하는데, 그 외에 사회적 활동이나 교류는 전혀 없는 상태인거죠. (F)

이중돌봄을 위한 경제적 추가비용은 매우 부담스런 요소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특히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아동이나 노인돌봄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이중돌봄 책임의 이중 혹은 삼중 부담으로 직결된다. 추가비용의 요구로 유급노동을 하면 아동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나, 전업주부로 남을 경우에는 부모 돌봄 비용이 갑작스레 큰 부담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돌봄으로 인해 생겨나는 추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거나 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을 벌기 보다는 직접 수발을 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는 섬이라 물가도 싸다지만.. 느끼기에는 물가도 오히려 더 비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기한테 많은 시간을 못내 주는 게 제일 힘들고, 아기를 많이 못 챙겨주는 게 많이 힘들죠. 항상 미안하죠. (D)

돈 때문에 일하는데 일 때문에 항상 바쁘고, 아이들이랑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죠. 애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내 주니까 항상 미안해요. (Q)

(일하는 이유는) 우선 비용이 크지요. 비용이 한 달에 약값 이렇게 다 하면 50만원 정도거든요. 50이 조금 넘으니까 보통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들한테.. 어떤 분들한테는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근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한참 아기 키우고 이런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아픈 분을 돌보는 대신에) 일을 해야 해요. (R)

경제적으로도 더 그래요. 부모님이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걸 못 대시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도우미나 이런 거 쓸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 몸으로 때워야지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같은 공간 안에서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계속 봐야 하고.. (P)

(2) 돌봄대상자와의 관계와 돌봄 경험: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사이

앞서 설문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노인돌봄은 아동돌봄에 비하여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높게 나타나지만 돌봄대상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부담보다는 즐거움이나 기쁨, 보람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을 돌보면서 신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노인이 자신의 자녀들(손주)과 맺는 관계로 인해서 정서적 안정감이나 애정적 유대를 강화하여 좋기도 하다. 사회적 관계로 보면 며느리이기는 하지만 유사 가족관계로서 엄마-딸, 아버지-딸이 되면서 돌봄이 의무로서 짊어진 부담이 아니라 관계로서 맺어진 즐거움으로 변모한다. 이런 관계에서 돌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로 변화한다.

어머니가 아프셔도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되구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지만, 삶이 고달프면 애들한테 짜증내고 그러지만. 어머니가 애들한테 “에고에고, 우리 손주” 이렇게 해주고, 덕담도 해주시고, 이런 게 뭐랄까, 안정적으로 되는 거 같고,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럼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 같고, 애들이 시부모님을 되게 잘 따라요. (돌봐드리는 상황이지만) 시부모님 도움을 오히려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큰손자도 있지만 멀고, 대신해서 저희 애들을 먼저 살뜰하게 챙기시구요.. (E)

근데 딸이 둘인데 멀리 있다 보니까 제가 며느리인데 거의 딸 노릇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저를 거의 딸 취급 하세요.. 그러니 힘들어도 좋지요.. (K)

아이가 아프시기는 해도 조부모를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고, 어른과 가족 특히 편찮은 분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체력적인 부분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부담이 크지만.. 아버님이어서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케어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었는데, 비록 시아버님이시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 마치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충격과 슬픔이 있었어요. (S)

반면 실제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이었어도 오랫동안 양금이 있었던 사이에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 괴로움은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시부모-며느리 관계보다 힘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모의 치매로 불가피하게 돌봄을 제공해야 했던 사례는 모두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한 사례(O)는 돌봄 자체의 괴로움을 연민의 감정으로 덮으려 하면서 힘들어 한 반면, 다른 한 사례(H)는 결국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마저도 부담스러워 하였다. 관계가 나뉘었던 시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사례(Q)는 환자임에도 점점 더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괴로워하고, 어쩔 수 없이 말아야 하는 돌봄스트레스로 한의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다. 관계가 좋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자신의 집에서 모셔야 했던 경우(R)는 그 괴로움으로 불임 현상까지 나타나는 경험을 하였다.

저는 아버지가 아프면 절대 (직접) 못 돌봐요. 돈을 드려도 싫고 얼굴을 맞대야 할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어쩔 수 없이 돌봐드려야 한다면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했던 폭언, 폭력, 행동 생각나... 휴.. 안되요.. (H)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그냥 환자이긴 한데, 같이 살면서 좀 더 마음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싫은데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한의원 다니면서 마음 다스리는 약을 먹고 있어요. (Q)

그때 전업주부였어도, 분명히 힘들었겠지만, 맞벌이인 상태고, 제가 애도 늦게 생겼어요. 결혼한지 4년만에 생긴건데.. 심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더 아기도 늦어진 것 같기도 그렇더라구요. (R)

(3) 이중돌봄 요구의 충돌: 우선순위 갈등(priority conflicts)

6세 이하의 아이는 상당한 돌봄의 요구가 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의식주 해결 이외에 놀이와 대화와 같은 정서적 돌봄요구가 많다. 많은 조사대상자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 주고 싶은 강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국사회에 있어왔던 '어른 공경' 먼저라는 윤리적 잣대에 의해 이중돌봄의 요구가 동시에 일어나면 상당한 갈등을 겪는다. 여기에 대해 조사대상자는 주로 아이와 관련해서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대응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에서는 노인돌봄 요구가 기능적으로 충족되도록 먼저 행동한다. 마음과 달리 아이들의 요구보다는 노인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서 심리적 우선순위 갈등이 상당히 높았다.

아버님 좋아하는 것 위주의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어떤 때 보면, 어른이 먹을 반찬인데 애들이 먹을 건 없는.. 오히려 애들한테 잘 신경을 못 쓰는 게 미안한 경우가 많죠. (B, C)

음식을 주로 아버님 위주로 해서 먹어서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야 해요. 그럴 때 죄송하고 미안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S)

기빠도 (아이들에게) 감정 표현도 격하게 잘 못했어요. 애가 학교서 올 때도 막 이름 부르며 들어오는데 엄청 환하게 맞아 주지 못해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약간.. 환자 있고 가라앉은 느낌에 맞춰져 있어요 (A)

(4) 사회문화적 성역할과 돌봄경험: 고마움과 당연함 사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며느리 보다는 생물학적 자녀, 즉 딸에 의한 돌봄이 일반화된다. 최근 들어 노년을 위해 아들보다는 딸이 더 낫다는 얘기들이 확산된 데에는 법률적으로 맺어진 관계보다는 애정적 유대로 묶인 관계로부터의 돌봄이 더 나올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설문지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딸들은 며느리일 때 보다 돌봄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덜 갖고 있다. 그러나 돌봄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 딸들의 부모돌봄 경험은 사회문화적으로 깔린 성역할 기반 성별분업에 의해 몇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 부모를 위한 돌봄이 즐거움보다는 버거움 혹은 힘듦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첫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계 중심의 사회문화 속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볼 경우에는 주변(특히 남성배우자)으로부터 고마워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받는 등 심리적 보상을 받는 데 반해, 딸로서 부모를 모실 경우에는 오히려 배우자의 눈치를 보거나 혼자서 모든 돌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딸인 경우는 돌봄과 관련된 모든 일을 혼자 '알아서', '큰 소리 내지 않고'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들은 여성 배우자가 아픈 장인/장모를 돌보면 거의 아무런 물리적 도움을 주지 않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불평을 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부계문화가 잔존하는 가운데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은 의무로, 딸의 부모 부양은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니, 친정부모 돌봄이 갖는 여러 부담을 고스란히 여성(딸)이 짊어지는 방식으로 현

실화하는 것이다. 딸이 친부모를 돌봐야 하는 것이 가진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인식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중돌봄의 어려움들을 딸이 전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즐거움은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나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저희가 둘째죠. 그런데 큰 형이 여의치 않아 저희가 암투병하는 시어른을 모시죠. 힘들 때는 저희 친정엄마 도움도 받고요. 남편은 늘 고맙다 하고요. 다른 식구들도 고맙다, 미안하다 하고요. 아버님도 미안해하고 늘 고맙다하시고. (N)

제가 결혼 때부터(결혼 전부터) 이미 시아버지는 전신마비, 치매, 언어장애 있으셨어요. 잠시 간병인 사용한 적 있으나 거의 저희가 집에서 했죠.. 남편은 미안하니까 아버님 일이면 뭘 해 달라고 하면 바로 움직여요. 고마워하면서 선물도 몰래몰래 주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줄어들어요. (S)

남편은 돌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바깥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 쪽 부모다 보니까, (남편에게) 퍼뜩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또 남편 성격이, 한 번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들어준다거나 센스 있게 먼저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그니까 아무래도 제가 많이 힘들었죠. (L)

(남편은) 엄마 모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서운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남편이 고마운 점은 (엄마에게 한달에) 20만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 말 안하는 것이예요. 요새 전업주부가 되면서 남편에게 말 안하고 돈 드리는 게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어요. (T)

또한 이중돌봄에 배우자가 도와주고 있더라도 돌봄수행 방식에 있어 성역할은 분명하다. 남성은 병원동행, 교통편 제공과 같은 기능에 한정된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양육이나 수발의 직접적 행위는 여성이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돌봄의 시간을 분담하지 못하면서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두거나, 직장을 가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근로시간이 짧거나 변경이 쉬운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인터뷰 조사에서 많은 여성은 남편에게 부모/시부모의 돌봄을 직접 요구하기 보다는 스스로 체념하고 돌봄의 주된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이것이 기혼여성의 삶을 자조하고 있었다.

남편은 부모도 그렇지만 아이에 관한 것도 거의 없고, 퇴근하고 세탁기 돌린다거나, 청소한다거나, 근데 그게 거의 미미해요. 가장 힘든 거는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두 번째는 내 몸이 힘들다는 거. 그래도 어떻게요. (남편이) 바빠서 집에 못 오는데.. 아이 둘이면 아마 대부분 결혼한 여자들은 다 그럴걸요? (Q)

(5)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과 돌봄경험: 우리와 '타인' 사이

2000년대 초반 이후 보육서비스 확대나 2008년 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확대는 이중돌봄을 하는 가

족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면접자 대부분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아동을 보내고, 그 시간에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상대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대부분 조사대상자가 보육서비스 이용은 수월한 반면, 재가방문서비스, 간병인 및 아이돌보미와 같이 누군가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중돌봄을 하면서 심신이 지쳐서 아이돌보미와 같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외부인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갖는 터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주요 돌봄자인 여성이 장기간 노인돌봄으로 지쳐서 사회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 '가족은 당연히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를 갖는 부모당사자 또는 남성배우자들의 거부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돌봄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을 나누어주겠다는 남성 배우자의 말은 '바깥일이 바빠서(Q)', '거의 매일 늦고(F)', '피곤해 들어와서 누워버리는(P)' 속에서 여성은 홀로 이중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고립된 상황에 봉착한다. (부모는) 자식이 돌봐야 하고, 집안에서 돌봐야 한다는 이상향은 이중돌봄을 하는 여성의 과부하로 현실화된다.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천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지만 애가 처음 본 낯선 사람한테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선뜻 맡기기가 그래요. 저도 (집안에) 낯선 사람에 대해 쫓겨움이 있지요. (J)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릴 때도 꼭 자기가(남편이) 해요. 통원 차량을 이용하자고 해도 거부해요. '부모는 자식이 꼭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요. 어머니 상황이 많이 나빠져서 간병인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남편도 어머니도 듣지 않아요. 남편은 본인이 하겠다고 말만 하지 바깥일이 바빠서 거의 (집에) 없어요. 결국 나 혼자.. (Q)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거든요. 동서는 같은 머느리 입장이고 제가 아랫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동서가 2-3개월에 한 번이라도 모셔가는 것처럼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형제들은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러다보니 다 해야 하죠.. 남편은 도와주려 해도 직장서 돌아와 힘들어 누워버리는데 거기다가 무얼 도와 달라 하나요.. (P)

(6) 돌봄제공자를 돌보는 서비스(caring the caregiver)

마지막으로 돌봄제공자가 원하는 서비스 요구는 단연 경제적 부담 완화이다. 아이를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부모/시부모에게 들어가는 치료, 의료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힘들어했으며, 형제들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두 요인(누가 돌보나 vs 누가 비용을 지불하나) 중의 하나다. 부모의 건강상태가 가족내에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면 외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소득수준상 감당하고 있는 가구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용분담을 않는 다른 형제들에게 갈등을 느끼고 있었으며(C), 저소득 가구는 비용부담 능력이 안 돼 집에서 모시고 있었다(F).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암, 심장병, 류마티스 등의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둘째, 가족돌봄자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휴식지원이다. 가족돌봄자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노인을 옆에서 수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봄제공자를 돌봄대상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시간과 서비스 제공의 요구가 높았다. 주로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고령의 노인에게 돌봄스트레스는 우울증이나 감정조절 장애로 나타나는 사례(Q, A)가 있었다. 이중돌봄자의 과부하와 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및 휴식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질환 또는 장애 등으로 고령의 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광범위성을 보여주고 돌봄이 상당히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설문지와 심층 인터뷰를 결합한 조사연구 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그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을 하는 당사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현상은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남성들의 돌봄이 병원 동행, 차량 지원과 같은 기능적 지원에 제한되는데 비해 여성들의 돌봄은 직접 돌봄, 목욕, 청소, 반찬, 시장보기, 서비스 연결 및 관리 등 돌봄유형이 광범위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중돌봄의 과중함이나 심신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따른 우선순위 갈등이 있었으며 부모를 충분히 모시지 못하는 갈등도 컸다. 또 사회서비스를 쓰고 싶은 의사를 보인 경우에 여전히 가족내 돌봄을 이상향으로 받아들이는 부모세대와 남성배우자의 반대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면서 이중돌봄의 과중한 책임을 여성이 져야 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이중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돌봄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나 가능성이 있는 그룹까지 포함하면 거의 2명 중 한명이 이중돌봄의 위기에 직면한다. 돌봄이 특정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좀 더 실제 현실에 기반을 둔 돌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위기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구학적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한부모가족의 증가, 노동구조상으로는 남성가장에 의해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붕괴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돌봄의 위기를 불러 오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Chan et al., 2011). 여성들은 점점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유급노동 참여를 생애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육과 노동참여의 기간으로 인하여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더 늦은 나이에 아동을 출산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소자녀화 현상도 부모세대 돌봄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돌

봄의 문제에 노출해야 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돌봄정책은 아동돌봄과 노인 돌봄 정책이 상호 개별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아동을 위한 정책은 보육정책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노인돌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돌봄이 특정 시기에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 및 질환정도가 심각한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들이 앓는 질병은 노인성 질환 이외에도 암, 심장질환, 디스크 등 상당히 다양하며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특정시기, 특정 질병에 집중된 정책은 상당수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돌봄을 보다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이중생계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는 환경으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사회정책에 통용되는 가족에 의한 돌봄 개념과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Folbre, 2001; Noddings, 2002). 현재까지 가족구성원에 의한 돌봄의 개념은 주로 직접 돌봄(direct care-giving)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초)고령화, 소자녀화,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 취업여성의 증가와 같은 사회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돌봄이 사회화된다고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에 의한 돌봄이 전적으로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마경희, 2010; Folbre, 2001). 선진국도 가족이나 친척이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비율은 70-80%이며, OECD 국가의 경우도 돌봄의 2/3-4/5는 가족내 돌봄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의 돌봄서비스나 요양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돌봄의 방식은 가족내 구성원이 돌봄을 직접 하는 방식에서 돌봄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직화하는 관리자 역할(care-manager)로 변화하고 있을 뿐 돌봄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일차적 돌봄자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높지 않은 미국도 5-10% 가족만이 공적 서비스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제한된 시간동안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장혜경 외, 2006). 이것은 우리나라도 돌봄의 사회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이 가정내에서 맡아서 해 나가야 할 돌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한정된 돌봄정책의 범위를 돌봄관리자(care-managing) 역할을 하는 가족까지 확장하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돌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이나 이용 접근성을 효율화하고, 동시에 비용상 부담을 완화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내 사회적 돌봄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가족내 돌봄과 흐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겠다.

셋째, 돌봄 부담이나 보람에 관계의 영향력이 뚜렷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돌봄제공자-돌봄수혜자간 관계를 성찰시키고 재위치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실상 가족관계를 되돌이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후 개입보다는 사전예방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교육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관계 맺기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피하지 못한 선택으로 가족내에서 주돌봄자가 경우에 대한 상담지원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돌봄자가 개인적으로 돌봄의 고통을 감내하기 보다는 돌봄대상자,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그리고 현재의 돌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상담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이를 외면하면 돌봄제공자의 돌봄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방임이나 외면 등 돌봄의 질 하락이 우려되며, 심한 경우 노인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고민해보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된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시해 보면, 우선 이중돌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이다. 실상 서비스 접근성은 서비스의 총량보다는 서비스 이용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렴하면서도 믿을만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이다. 이중돌봄을 동시에 하는 가족은 가용 돌봄비용 한도를 넘어서기 쉽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시급하다. 둘째,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이다. 대부분 이중돌봄을 혼자서 하는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고갈을 쉽게 느낀 반면 함께 하는 돌봄은 그 반대로 수월함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직장일로 바빠서 대부분 돌봄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함께 하는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가족간호휴가제도의 정착이다. 파트타임, 유연근무제(flexible time)나 근로시간 조절 등의 고용관련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내 돌봄을 사회화시키고 혹은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나 방문서비스, 보육서비스, 요양 및 보육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을 때 가족내 돌봄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넷째, 돌봄자를 위한 케어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내에서 독자적으로 생활해나가기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 약자를 돌보아왔던 돌봄자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돌봄자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또는 일가족양립정책)이나 상담서비스나 휴식서비스 등이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미경·송다영, 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희강·강문선, 2010, “돌봄의 공공윤리: 에바(Eva Kittay)이론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한국정치학회보』, 44(4): 45-72.
 마경희, 2010, “돌봄의 정치적 윤리”, 『한국사회정책』, 17(3): 319-348.
 박기남, 2009, “유료 재가 노인 돌봄 노동과 돌봄 관계의 특성”, 『가족과 문화』, 21(3): 73-107.
 박영란, 2007, “돌봄노동 여성의 욕구와 노인요양보장 정책”, 『사회보장연구』, 24(1): 27-56.
 송다영, 2003,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 105-128.
 신경아, 2011,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한국사회학』, 45(4): 64-96.
 여성가족부, 2004, 『전국보육실태조사』.
 유태균 역,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나남출판사.
 이여봉, 2011, “부양지원과 세대갈등: 딸과 친정부모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가족과 문화』, 23(1):

41-76.

- 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수정, 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 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경희,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희경, 2011,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감정노동으로서의 일반적 특징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9: 113-139.
- 최희경, 2008, “저소득층 노인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유사가족관계 연구”, 『가족과 문화』, 20(3): 63-97.
- Daly, M., and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Folbre, N.,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New Press.
- Fraser, N., 1990, “Struggles over needs”, in *Women, the State, and Welfare*, edited by Gordon, L., Madison: University Press of Wisconsin.
- Held, V., 2006, *The Ethic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ttay, E., 1999, *Lover's Labor: Essays i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Kunemund, H., 2006, “Changing welfare states and the ‘sandwich generation’: Increasing burden for the next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1(2): 11-30.
- Noddings, N., 2002, *Start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ussbaum, M., 2002, “Long-term care and social justice: A challenge to conventional ideas of the social contract”,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se Justice Require?* WHO.
- Chan, R., Soma, N., and Yamashita, J., 2011, “Care regimes and responses: East Asian experiences compared”,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27(2): 175-186.
- Rubin, R., and White-Means S., 2009, “Informal caregiving: Dilemmas of sandwiched caregiv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0: 252-267.
- Soma, N., and Yamashita, J., 2013, “The double burden of care in Japan: Emerging new social risks of women providing both elderly care and childcare”, presented at the EASP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Hong Kong.
- Spillman, B., and Pezzin, L., 2000, “Potential and active family caregivers: Changing networks and the ‘sandwich generation’”, *The Milbank Quarterly*, 78(3): 347-373.
- Ungerson, C., 2005, “Care, work and feeling”, *The Socialist Review*, 53(s2): 188-203.

A Study on Double-Care and Multiplicity of Caring Experiences among Women Aged 30s to 40s in Korea

Song, Dayo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is to show the prevalence of double-care burdened households who care simultaneously for children(under 6) and provide invalid elderly care for aging parents among women aged 30s to 40s in Korea. The study aims to place care as ordinary needs for our whole lifetime, not as a special happening to a certain age group at specific period. Also, study attempts to reveal that care experiences include both burden and pleasure, and that care relationship, such as care giver-receiver-assistants(second-helpers), strongly affects the diversity of caring experience.

Results are as follows. 38.1% of the survey respondents report that they are/have ever been the double-care burdened households who carry both child care under 6 and elderly care suffering from health problems in the past or the present. If including those who expecting the double burden of care in the near future, the prevalence rate goes up to 54.9%. As hypothesized, caring includes both pleasure and burden. The order of pleasant feelings is child care> parents care>in-law parents care, and that of burden is in reverse. However, caring relationship has a strong influence on pleasure or agony of the caring experienc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which is expressed by pleasure or pain, occurs to both daughter-parents and in-laws. Interestingly, the caring experiences by daughter to her parents tend to go more burdensome because their husbands do not commit their identity as carer aid, with no additional caring effort for their in-laws. In conclusion, some policy suggestions for double care problems are provided.

Key words: double care, caring experience, care labor, care relationship, child care, elderly care

[논문 접수일 : 14. 05. 31, 심사일 : 14. 06. 30, 게재 확정일 : 14. 07. 31]